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33권 17호(다해) 2013-3-24

[묵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저오로 디 본도네, 14c, 프레스코화>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시며,
정해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분을 고소하는 이도,
팔아넘길 이도,
매질하며 조롱하는 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도,
십자가형을 선언할 빌라도도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에 걸음을 깔아드릴 이도,
손에 팔마 들고 환호하는 이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드릴 시몬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백인대장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좋은 역할에 쓰시겠다면
더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전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권복남 모니카, 이용식 베드로, 김금점 모니카, 서해수 마리아, 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재순 아가다, 주용범 아브라함, 김종환 야고보, 김봉태 바오로, 김정재 안젤라, 이인순, 김만성, 서점용 바오로, 이순이 안나, 낙태된 모든 영혼들
	(생)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바나, 이윤조 클라라, 박인경 베드로, 배경한 찰스 & 배경미 안젤라, 김병숙, 고규재 체칠리아, 변혜경 올리아나, 최양숙 안젤라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져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뺨은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뿔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과, 주님을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 복음 루카(Luke) 22,14-23,56

영성체송 아버지 이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호산나(by Tuttle)	229	성가대
봉헌	157	259	259
성체	호산나(by Hillsong)	106	285
파견	149	154	15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과 마리아를 통한 기도

88). 특히 아카티스트, 번역하면“서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찬미가는 비잔틴 전통 최고의 성모
신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기도하는 것은 영혼
을 확장시켜 높은 곳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신 그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지

89). 나자렛의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시는 하느님의 말
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구속의 신비가 이루어
진 장소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근원지인
그 땅을 향하게 됩니다. 실상, 성령의 활동으로 말씀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장소에, 로마 제국 가장자리의 작은 땅에 강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보편성과 유
일성을 공경하는 그만큼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님께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 자신
을 내어 주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구원자께서 밟고 걸으
셨던 그 돌들은 우리에게 기억들로 가득하며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외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은 그 성지를 “다섯 번
재 복음”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표현을 상기하였습니다. 수많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소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부활하신 분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땅에
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가까움을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교회를 위한 신앙의 등대
로서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다원적이고 다민족, 다종교로 이
루어졌으며 지금도 그러한 사회의 삶 안에서 조화와 지혜와
균형의 누룩으로서도” 봉사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성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순례 장소가 되고 있
습니다. 예로니모 성인과 같은 저자들에 의해 고대에서도 증
거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순례는 기도와 참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상 예루살렘에 눈길과 마음을 돌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모든 순례의 진정한 목적지인 천상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
이(사도 4,12 참조) 모든 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간절
한 희망이 타오를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궐로 들어오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웬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 그는 친구에게 동행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친구는 그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갈

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두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관심 없이 지나던 세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부름은 죽음을 의미하고, 첫번째 친구는 재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두고 싶어도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친구는 친인척을 말하는데 그들도 장례식장까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친구는 사랑의 선행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선행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면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의 때이다."라는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늘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사고와 중병이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이며, 결실이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묵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외침을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시작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갖가지 부정과 부조리, 고통과 모순, 실패 등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은 죽음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자기 헌신과 하느님께 대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에게 구원을 다시 가져다주었습니다.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말로 지은 수많은 죄

두통으로 병원에 갔더니 턱관절도 닳았다네.
무릎, 허리가 아렸지만
지가 노동을 했나 운동을 했나. 뭐 한다고 아플 만큼 닳았을까.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봐.
좋은 말만 했다 해도 끔찍한 것을, 좋은 말만 했으니 만무라. 턱관절 닳은 거 누가 알까 두렵네.

<이영 아네스 수필가>

이번주(성지주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부활대축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주일학교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송현식 바오로 서용숙 에스텔	주일학교	이희경 크리스티나
서 간	황지영 안젤라	주일학교	제물봉헌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 예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분의 수난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합니다. 오늘 사제가 축복한 성지(聖枝)는 내년 재의수요일 전주일까지 십자가상에 끼워 잘 보관하십시오.

성삼일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주간을 말합니다. 특히 성삼일(목,금,토)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시기이므로 그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3월28일 오후 8시
(밤 10시부터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3월29일 오후 8시
(오전 6시까지 수난감실 성체조배)
수난예식에 앞서 오후 3시에 야외14처에서 전신자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3월30일 오후 9시
* 배론청년회에서 부활초를 판매봉사합니다.
- ◆ 부활 대축일 미사(3월31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 사순절 희생 애공분투 : 성 목요일 미사중에 봉헌합니다.
- ◆ 27일(수) 저녁미사후 마지막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 고해사제 : 이성주 프란치스코 신부님

- ◆ 발씻김 예식(세족례)에 참여하실 분 신청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주님만찬 성목요일 미사(28일) 중 발씻김 예식에 참여하실 교우는 오늘(24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일시 : 오늘 24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야외14처(각처 단체봉헌자가 담당)와 성전 안팎을 구역 반별로 배정. 안내계시문 참조.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4월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십시오.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 단장 ☎(310)408-1443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부활절에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3월24일(성지주일) : 토런스 남2/3반(풍나물밥 \$3)
* 주일학교(5학년 떡볶이)
- 3월30일(부활성야) : 미사후 성모회에서 호박죽 나눔
- 3월31일(부활대축일) : 전신자와 육개장 나눔 (PV2반 봉사)
* 주일학교(4학년 타코)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3월28(성 목요일)/29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북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P.V.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하버 / 카슨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대홍 권태만 김병조 김성택 김영정 김 은 김정희 김찬구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민형기 박광자 박영룡 배태임 성미선 송재훈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우영희 원건희 유근우 육근주 이명자 이용무 이종선 정규숙 정혜영 최원석 최이원 한혁수 향인중	성전헌금	강대홍 권태만 김병조 김찬구 김충섭 김현숙 남명자 박영룡 성미선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원건희 유근우 이명자 이용무 이일길 정규숙 정혜영 최원석 최이원 한혁수 향인중
합계 : \$2,930		합계 : \$1,710	
주일미사헌금 : \$2,846		감사헌금 : 우영희 박이레네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집사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오늘 24일(성지주일): 유치부, 1,2학년
-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대회 오늘(24일) 마감
● 제목: 마태오복음(영어) * 대상: 3학년~12학년
● 시상: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31일)
- ◆ 부활절 Egg Hunting
● 일시: 31일 부활대축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부터
● 장소: 축구장 잔디
● 대상: 유치부~6학년
● 방식: 성경구절이 담긴 플라스틱 달걀을 찾아내어 대형판에 성경구절을 퍼즐 맞추듯 붙입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12학년
● 일시: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190(Deposit \$4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3월31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 한국학교 교사를 초빙합니다.
● 한국 또는 미국 대학졸업하신분
● 한국학교 관련 연수에 참석할 수 있는 분
●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
● 문의: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오늘 주일(24일) 오후 5시
● 장소: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한인종신부제협의회
● 신청 및 문의: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 유해 공경예식
● 일시: 4월19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주임신부 김해원 가브리엘)
● 문의: 프란치스코성당 사무실 ☎(310)324-8159
- ◆ 자마йка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Mission Trip to Jamaica)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자"
● 일정: 5월4일(토)~12일(주일)까지
● 지도신부: 이유진 신부(순교자성당 주임신부)
● 참가비: \$700(항공료만 부담)
● 준비모임: 매주 일요일 7:30pm
● 문의: 순교자성당 사무실 ☎(714)897-6510

소공동체 3월 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양금 안나 518-3041 3/9(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9(토) 오후 7시
	3	박진경 클라라 871-7460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23(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6(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3/8(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3/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올리아나 634-6923 3/14(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화현 마리아 213-550-6653	전화현 마리아 213-550-6653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서성용 베드로 686-3587 3/11(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쥘마 818-640-3656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9(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영무 스테파노 377-9989 3/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재준 요한 541-0765 3/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3/8(금) 저녁미사후 십자가의길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진숙 엘리사벳 617-3568 3/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주일학교 애그 헌팅	학생미사 후
------------	--------

구인

Boba Loca 에서 일하실 분(20대 중후반)을 찾습니다.

- 위치: 22501 Crenshaw Bl. Torrance ☎(310)257-9033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좌에 공식 착좌 —19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미사

임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미사를 갖고 사도좌에 공식 착좌했다.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즉위미사에는 전 세계 130여개국 축하사절단과 각 종단대표, 추기경단을 비롯한 성직자와 신자 등 5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렸다. 즉



베드로 성인의 모습이 새겨진 '어부의 반지'를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

위미사에 앞서 동방 가톨릭교회 총대주교들과 함께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있는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묘소를 참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황금색 제의를 입은 채 복사단과 추기경단을 앞세우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호칭기도로 시작된 즉위예식은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팔리움과 '어부의 반지' 수여, 순명서약 등에 이어 즉위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팔리움은 부제급 수석추기경인 장-루이 토랑 추기경이, '어부의 반지'는 주교급 수석추기경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 수여했고, 이어 각 품계별로 2명씩 총 6명의 추기경이 어부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순명을 서약했다.

한편 한국 정부 경축사절단장으로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위식을 마친 뒤 각국 축하 사절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황의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평화방송뉴스>

☞ 팔리움 착용

어린 양의 양털로 만든 팔리움을 교황께서 어깨에 걸친다. 이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신 '착한 목자'를 상기시켜 준다. 교황성하의 팔리움에는 5개의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관구장 대주교의 팔리움에는 5개의 검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사용하는 팔리움은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께서 사용한 것과 같다. 토랑 선임 부제급 추기경이 팔리움을 교황 성하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 어부의 반지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렸다. 이 반지는 추기경단장인 소다노 추기경(주교급 추기경의 선

자)이 교황 성하께 드린다. 이 반지에는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엔리코 만프리니가 제작한 것이다. 이 반지는 바로 6세 교황의 개인 비서였던 마케대주교를 이어서 말나티 몬시뇰의 소장품이었다. 말나티 몬시뇰은 레 추기경을 통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 반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반지는 은과 금으로 만

들어졌다.

▶새 교황명, 왜 프란치스코일까?

현시대 만연한 갈등·분쟁 대신 평화·청빈의 삶에 대한 의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염두에 둔 것이다. 프란치스코회와 글라라회를 설립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청빈하고 소박한 삶, 평화의 전교자로 유명하다. 온갖 물이해와 편견이 난무하고, 대화와 화해보다는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돼 있는 오늘날 세계 상황, 교회 안에서조차 의견과 견해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대 세계에서 가톨릭교회를 이끌어갈 교황은 평화와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이상이 간절하게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 성직자로서 스스로 소박한 삶의 표양을 보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재위 기간에도 여전히 이어질 이러한 청빈과 평화의 삶,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자신의 교황명 '프란치스코'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난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도 많았다. 1202년 아시시와 페루자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 1년 만에 풀려난 그는 병상에 앓아누웠는데 이 기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회개의 삶을 살아갔다.

그는 자신을 회개자로만 여기지 않고 평화의 전도자로도 여겼다. 그는 수도원 안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평화를 전했다. 늘 평화 안에 머물렀던 그는 설교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로 설교가 됐다고 전해진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